

서호인의 '소설처럼'



병커에서의 질문

- 강영숙 '부림지구 병커X'

2020년의 봄은 여러 사람의 기억에서 확연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다. 마스크, 방역복, 격리, 전염병...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감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유지는 경제의 위축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고 그 피해는 취약 계층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팬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 19는 어느 도시, 어느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개되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폭증하는 등 의료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은 그 통계를 완벽하게 믿기 어렵고,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상식과는 동떨어진 방역 대책을 밀어붙이는 듯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이들의 일상이 망가진 세계적 재난 상황. 진단도 예상도 어려운 시국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제껏 인류가 일군 과학 문명과 산업화가 무색하게도, 손 씻기와 거리 유지가 개인에게 부여된 몫의 전부다. 피부색이나 언어·성별도 가리지 않

는 바이러스의 습격은 인간을 고독한 개인으로 만들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최대한 넓고 꼼꼼하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였던 자본주의 연결망의 취약함도 이참에 드러났다. 우리는 이 난국을 결국 극복할 것이니 필요 이상으로 절망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겠으나, 재난 앞에 선 개인의 존재는 오래 곱씹어 생각할 만하다. 재난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나로 존재해야 하는가.

강영숙 장편소설 '부림지구 병커X'는 이 시국에 소설의 형식을 취한 시의적절한 질문이 된다. 중화학 공업지대였던 부림지구는 대지진 '더 윈'의 여파로 오염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는 장부는 부림지구를 고립시키고, 그곳에 남은 주민을 오염원 취급한다. 병커에 남은 사람들은 지진 전의 일상으로 복귀는커녕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배변에도 제약 받는 등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감내한다. 그들에게 주어선 선택지는 스스로를 감염원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제안대로 목숨에 짐을 싣고 부림지구를 떠나거나, 지금 이대로 혹은 더 악화된 환경을 견디며 부림지구에 남는 것이다.

지진 이후 디스토피아를 그린 서사는 부림지구를 둘러싼 재난의 비극과 특정한 세력의 음모, 악무한을 돌파하는 인간의 의지 같은 것을 풀어나기 쉽지만 '부림지구 병커X'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맥류 스타킹에 집착하는 주인공 '나'와 병커에 남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장', 배우를 꾸꾸는 청소년 '헤나', 돌도 없는 로맨티스트로 보이는 노인 부부, 격한 사랑을 나누는 쿼어 커플, 해체된 설문을 이어 가는 연구원 등등.....

소설은 그들을 한데 묶어 서사의 동력으로 쓰기보다는 그들 각자의 사연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술을 멈추려는 방식으로 서사의 속도를 조절한다. 인간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인간성을 찾아, 지진이 일어난 날 앞뒤의 기억을 조각해 소설에 흠뻑된다. 그런 의미로 디스토피아 소설치고는 너무나 낙관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주인공 '나'의 캐릭터 선택지는 스스로를 감염원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제안대로 목숨에 짐을 싣고 부림지구를 떠나거나, 지금 이대로 혹은 더 악화된 환경을 견디며 부림지구에 남는 것이다.

병커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듯, 지금 여기의 개인도 당연히 그렇다. 누구

는 아무도 모르게 마스크를 기부하는데 누구는 마스크를 사제기했다가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남긴다. 누구는 진로소와 갖가지 현장에 투신하는데 누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혐오를 전시킨다. 소설처럼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가 남기는 상처도 이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처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힘 덕분일 것이다. 타인에 대한 봉쇄와 혐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다. 치밀한 민주주의하에서만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손을 씻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자신을 사량하고 타인과 연대할 수 있다.

주인공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은 부림지구에서의 대안적 삶을 모색한다. 폐허로 자신해 돌아가는 그들의 선택이 정당해 보이는 것은 부림지구 너머의 개인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이곳의 체제(병커)에서 어떤 개인(X)이 될 것인지. 어쩌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할 결정적 질문이 될 것이다. (시인)

社說

산단 조성 추가 비용 입주 기업에 떠넘겨서야

광주시가 처음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조성한 평동 3차산업단지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산단 개발 과정에서 분양 지연으로 발생한 20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시가 입주 기업들에게 떠넘기려다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광산구 연산동 117만 8000㎡(36만 평)에 평동 3차산업 단지를 착공했다. 민간 투자 방식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주)평동3차산단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주)한양 등 건설업체, 금융회사들이 지분 참여를 했다. 산단 개발은 광주시가 행정 절차를, 민간사업자는 자금 조달 및 조성 공사, 도시공사는 보상·분양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데 당초 2353억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지난해 말 2607억 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 증가 내역을 보면 분양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59억 원, 전기시설 지중화 등 추가 기반시설 50억 원 등으로 개발 주체의 책임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만 보면 추가 비용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분양 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입주 예정인 90개 업체가

분양가 인상에 따라 2억~4억 원씩을 더 내야 할 판이라고 한다. 광주시 등은 원 인 제공의 책임은 따지지 않는 채 원칙만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20여 개 업체는 최근 광주지법에 정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광주시가 사업 주체이면서도 도시공사와 SPC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도 문제다. SPC는 또 분양을 위탁받은 도시공사의 업무 소홀을,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분양가 결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원칙이 그렇더라도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과 인센티브를 약속해 놓고 뒤늦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광주시는 분양이 지연된 배경과 분양가 인상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재판 문제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광주시 '2020 예술관광' 비전에 거는 기대

광주시가 2020년 예술관광을 통해 브랜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관광 전략으로 도시의 미래를 그려 나간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진흥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올해부터 4년 간 이어지는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아시아 예술관광 브랜드화 및 대표 콘텐츠 개발, 예술관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구축,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등 5개 핵심 과제 등이 포함됐다.

사실 이번 시의 계획은 브랜드 관광도시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잘 알다시피 광주는 숙박 인

프라들이 미흡해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실태에 따르면 광주는 세종시의 뒤를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인 1.1%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만의 색깔을 살려 내지 못한 관광전략의 부재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는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대인예술시장 등 잠재력 있는 문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관광 전략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도시의 정체성에 맞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시는 이번 '예술관광 계획'이 융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후속 방안들을 마련해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사랑을 이어가는 가마터, 천막 병동, 선별 진료소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한 이후 3월 25일 현재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일 대책 회의를 하고 변경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대상 환자는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가 이뤄지며, 병원들의 대응 지침도 내려졌다. 이 모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사회, 그리고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운영하며 수고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이 지역 병의원 종사자 모두가 경의를 표한다.

우리 병원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며,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을 즉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진료하고 있다. 응급센터와 로비 주 출입문 이외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환자 면회를 금지했다. 또한 출입구에 24시간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안내하며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월 5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호흡기 환자의 외래 동선을 분리하고, 호흡기 안심 병동을 운영하며 지역의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병원 역사 속의 가마터와 천막 병동, 그리고 지금의 응급 선별 진료소로 이어지는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115년 역사의 광주기독병원은 의료 시설이 열악했던 시기에 사랑과 인술의 전도사였다. 1909년 죽어가던 거리의 한센 환자를 후송해 온 '포사이트' 선교사의 사랑이 있었고, 제중원 환자도 보호하고 데리고 온 한센 환자도 돌보기 위해 벽돌 굵던 빈 가마터에 격리 치료했던 '월선' 선교사의 지혜가 어우러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다. 또 한국전쟁 이후 넘쳐나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미군 부대 막사로 사용됐던 천막을 구해 이른바 천막 병동을 만들어 결핵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환자의 입속 핏덩이를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했던 '카딩턴' 선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확진자가 다년간 병원 또는 교회는 폐쇄되고 급기가 대한민국의 의료 재난에 직면해 있고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루머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이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 물론 우리도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바이러 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도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비를 외치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이웃'의 비유처럼 저마다 합당한 핑계를 대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 또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확진자 몇 번이라고 호명되는 환자가, 단지 우리에게 공포의 바이러스를 옮겨 줄지도 모르는 어떤 불길한 변종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가족 또는 동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대면한 이 바이러스 위기는 사실, 생활 신앙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의 양을 점검하는 기획이자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하는 공공성과 남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소망해 본다.

기고

아동학대 사각지대, 지역 사회 협력으로 해결해야



강성규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분사무소장

망 후 신고되었다. 사회적보호망 밖에서 죽은 후에야 발견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가 '피해 아동 발견율'이다. 이는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나타낸 것으로 단위는 퍼밀(%)이다. 우리나라 피해 아동 발견율은 2.98%로 미국 9.1%, 영국 9.0% 등 아동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면수심 20대 미혼모는 자신의 자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세 차례 방바닥에 던져 사망하게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수차례 폭력으로 고통받으며 한마디 말이나 저항도 못하고 죽어야 했던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3개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102명이었지만 그중 85%는 사

학대 재발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와 서비스 인프라 확대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식하여 2018년 전국 최초로 지방비를 자체 편성했으며, 무안에 전남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분사무소를 신규 개소했다. 이를 통해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분업화했고, 2019년에는 사례 관리 전담 기관인 전남북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로 개설해 타 시도와 비교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전라남도는 2018년 기준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6.15%를 기록했다.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전라남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남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7년부터 전남 중·서부 지역 16개

시군에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단순 재학대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비밀스럽게 발생하는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것은 한 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과 관심,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에서의 전문화된 사례 관리, 아동 분야 기관들의 이해와 조력을 통해 2-3 단계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 학대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책임을 국가와 민간이 나누는 원년이다. 각 기관들이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웃음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어제 시내 카페에서 오일 관련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작가와 기획자를 인터뷰하며 커피를 주문했다. 원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제품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컵에 음료를 내준다는 설명이 있었다. 기획자는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냈고 나도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요즘에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 마음은 있었지만 번거롭고 짐이 된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부터 실행해지는 마음은 땀뻣한 내 텀블러를 휴대하게 된 건 몇 주전 '쓰레기책'을 읽고서

'쓰레기책'을 읽고서

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오도스)란 책을 읽고 나서부터다. 고품격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나 이민자와의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찾기 위해 61개국 157개 도시를 돌아본 청년 정치인 이동학은 현장에서 전 세계가 해결책을 찾기 않으면 공멸하고 말 문제를 발견하고 그 내용으로 책을 쓰기로 한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천진한 아이의 모습이 표지에 담긴 책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 문제를 현상강 있게 담아냈다. 복잡한 이론이나 통계 자료 혹은 당위성의 나열 대신 바로 편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사진, 여기에 쉬운 글쓰기가 어우러진 이 책은 쓰레기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실감 나게 보여 주며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배달·택배·데이크아웃이 일상화된 우리는 어쩌면 24시간 내내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편의주의에 길들여진 내가 쉽사리 그 편리성을 포기하지는 못할 테고 작은 것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부터 실행해지는 마음에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생활화해 보기로 했다. 요즘엔 텀블러와

함께 꼭 챙겨 넣는 게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받은 소풍백이다. 접으면 주먹 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인데 가방이나 주머니에 쉽게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비닐봉지나 소풍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환경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그 기획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유갑은 따로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의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팀	220-0515 문화사업팀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